사순절 제 I 주일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기도서 P. 248 B해
제1독서(창세 9,8-15)
제2독서(베드 3,18-22)
복 음(마르코 1,12-15)

□ 강 론

되돌아 보라!

지난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모두 머리에 재를 받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재를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생의 의미를 깨우치는 예절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깨우치는 경고의 뜻이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세 생활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의 현세생활은 시작일 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한 뜻에서 현세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재를 받는 뜻은 또한 이 현세 생활을 새롭게 반성하며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는 뜻도 있읍니다. 옛날 욥 성인께서도 "주여 나는 먼지와 재 속에서 통회하나이다" (욥 42장 6절)라고 절규하시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읍니다.

사순절 시작의 첫 날을 재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시작입니다. 즉 새로와지기 위하여 깨끗이 정화하는 기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사건인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순절 40일동안 여러가지 일을 신자들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으며 어느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사순절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타성적으로 해 오던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반성하여 우리의 생활이 진정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이었던가를 질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기워갚는 뜻으로 여러가지 보속 행위를 합니다.

우리의 영신적인 반성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순간이야 말로 우리가 하느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중 출직해질 수 있고, 어린이와 같아질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읍니다. 기도없는 신앙생활은 이미 생활이 아니며, 기도없는 신앙은 이미 식어버린 차디찬 침묵의 생활입니다. 기도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참회도, 기쁨도, 용기도 얻을 수 없읍니다.

—주교회의 인성회(仁成會) 전국 사무국 제공

15원짜리 백금반지

백금반지까지 낀 아주머니가 버스승무원(차장)과 15원 때문에 시비하는 것을 보았다. 사연은 아주머니와 동승한 어린아이의 차삯때문에 발단된 것이다. 승무원은 65원을 내라 하고, 아주머니는 50원만 낸 것이다. 제값을 못받게 된 승무원이 "돈없으면 걸어가지…"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니까, 아주머니가 천원짜리를 꺼내며 "주면 될꺼 아니요"라고 맞받은 것이다.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마 허름하게 차린 아주머니였다면 싸움은 없었을 것이다. 비단옷에 백금반지, 눈두덩에까지 화장을 한 중년 여인이어서 승무원은 기어코 15원짜리 시비를 벌인 것 같다.

끝내는 "백년동안 조수질이나 해먹어라", "네까짓것이 배웠으면 국민학교나 다녔을텐데 너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나도 조수를 다섯 마리나 두고 있다"느니 하는 차마 귀담아 들을 수 없는 말이 부인의 입에서 서슴없이 쏟아졌다. 물론 승무원이 천원을 받고 거스름을 내주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승무원에게도 탓을 돌릴 수는 있겠으나, 승무원의 모습에는 범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었다. 돈있다고 으시대며 제 할일을 다 못하는 부인을 꾸짖는 위엄과 가진자의 비리를 비웃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문득 99만원을 가진 자가 만원을 가진자더러 "네 만원을 나에게 주면 100만원이 되겠으니 그리하자"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생각이 너무나 비약되었는가?

사순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때이다. 말 가운데 이웃을 얕잡아 함부로 하는 것도 사랑을 거스리는 것이다. 가졌으면서도 제몫에 인색하는 것도 사랑을 거스리는 일이다. 정도를 벗어나는 일도 사랑을 거스리는 일이지만, 조그마한 사랑에 인색하는 것도 사랑을 거스리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

죄악을 폭파시켜라!

□새 사제의 변□

걸음마 30일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을 시작하며 ②

전 종 복 신부

쏟아지는 축하속에 아기는 첫 울음을 터뜨렸다. 귀여운 강아지인지 미운 오리새끼인지는 시간이 흘러가야 알겠다. 갓 태어난 아기치고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은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를 연상시킨다. 넘어갈 것만 같은 불안전속에 가슴을 애태우는 부모의 눈은 마냥 걱정스럽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모습을 가슴조이며 주시하는 의혹의 눈길도 많다.

그러나, 아기의 눈은 모든것이 새롭기만 하다. 모두가 처음 보는 것들이기에 모든것을 알고 싶고 만지고 싶다. 신기한 불을 보고 만지려다 화상도 입을 것이다. 나무토막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도 입을 것이다. 그래도 아기는 끊임없이 걸어가고 싶은걸 어떡하랴. "귀엽다, 장래가 촉망된다, 기대가 크다"고들 한다. 아기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말이라면 그것도 일종의 유혹이라 하여도 과히 틀리지 않으리라.

아기에겐 꿈도 많고, 포부도 많다.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려는 탐구심도 충만하다. 혹시라도 그 모든것이 사라졌을 때 낙담하여 울지는 않을 지, 열심히 걷다 지쳐 노상에 주저 앉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러하더라도 앞으로 가고만 싶은 것이 아기의 심정이다.

말을 배우려고 옅토당토않는 이야기도 가끔한다. 귀에 거슬리는 괴성도 질러본다. 설득시키려고 울기도 하고, 재롱도 부려본다. 배꼽을 잡고 웃는 이도 있고, 마지못해 우는 이도 있다. 그래도 아기는 중단하지 않는다.

아기는 무엇인가를 움켜 잡는다. 가치판단이 어른과 판이해서 옥을 버리고 무쇠를 취한다. 아름답게 보이는 돈버섯을 마다않고 꿀꺽 삼킨다. 그러다보니 웃은 흙투성이고 얼굴은 상처뿐이다. 아까부터 아랫배는 마냥 우글거린다. 찌그러진 면상이 보기에 민망스럽다. 목적지는 까마득한데 눈꺼풀이 자꾸 아래로 처진다.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사제의 길인가 보다.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이 많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보다 지나간 발자취를 뒤돌아 보며 희개의 눈물을 흘려본다. 먼 앞날을 내다보며 미소를 띄운다.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 고통과 환희를 공존시키며 살아갈 아기는 일생 번민을 하겠지. 넓적한 "아빠"의 등에 업히고 싶다. 포근한 엄마의 가슴에 안기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울고 있는 아기에게 마지막 남은 하얀 옥잠화 한송이를 건네 주어야지 클로바 잎을 뜯어다가 귀여운 토끼에게 먹여야지 추위에 떨고있는 이웃집 할배를 위해 나의 기저귀로 목도리를 만들까보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야! 역시 아빠 등이 제일 든든해!"

(덕진 천주교회 보좌신부)

기 원(祈願)

장 그리스티나

하늘이 열리고
한줄기 여명은 또 비취입니다.

생활의 순환에서 모아진
인생의 한복판에
태양이 꾸며놓은 초록피안.
여기, 천년을 두고 살고싶은 생이 있읍니다.

금시라도 잡히는듯
가까우면서도
그러나
닿을 수 없이 먼데 계시는이여!
가슴에 밀려드는
흠모의 정을 안으로, 안으로 접어둡니다.

질식할듯
가슴을 태우는 분노에도
별을 헤아리는 날들속에서도
다지며 지녀온 엷은 숨결은
하늘 저쪽에로의
초록피안이 있어서이옵니다.

보이지 않는 실마리로
헤뜸어 보시는 영원한 빛의 거울이시여!
우리의 마침이 미소로 되게
이끌어 주십시요.

따스한 마음이 오가는
훈훈한 언덕에 내려진 평화의 입김.

가슴엔
하늘향한 기원이
희미한 여운만을 남긴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가슴에 길려오는
흠모의 정을 안으로, 안으로 불사릅니다.

〈둔율동 천주교회〉

□설계·감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언〉)

☆전주 가톨릭센타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경문학원

원장 한 정 상

□사순절 묵상 ①

더 자유로와지기 위하여 극기하자

우리 모두가 더 자유로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악에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절제도, 극기도, 인내도, 참음도 없는 생활은 우리를 진정한 노예상태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위험한 구렁에 처박히는 사고를 면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필요할 때마다 제어하여야 합니다.

사순절에 금육과 단식의 재를 지키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금육과 단식의 재는 보속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이를 기워갚는 것이 바로 보속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만 반성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흔적없이 새로와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흔적은 기워갚는 보속의 행위없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두 편리한 것만 찾고, 안락한 것만 찾으며, 쉽게만 살려는 사조에 휩싸여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쉽게 살기 위하여는 이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이기심은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차디차게 만들며, 서로 불신하게 만들며, 서로가 서로를 경쟁상태로 만들며, 끝내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편의주의 이기심이 우리 신앙에까지 침투하여 극기나 보속, 절제, 나아가서는 금육, 단식에 이르러서는 옛날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한 마디로 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에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읍니다. 지나친 염격주의에 휩싸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자기 극기를 완전히 버린다면 참 크리스챤적 성덕은 어디에 자리를 잡겠읍니까?

사순절 기간동안 옛날처럼 염격한 재는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순절 기간동안 매 금요일 금육과 성주간 금요일의 단식재는 지키도록 합시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하루 더 단식재를 지킬것을 권고합니다. 즉 돌아오는 3월 30일 금요일을 회개와 보속의 날로 전교회가 하루 더 단식재를 지킵시다. 그럼으로써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40일동안 단식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시다.

—주교회의 인성회(仁成會) 전국 사무국 제공

대학생회, 상지원 방문

지난 2월 25일, 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회는 김진소 지도신부의 인솔로 함열본당 소속인 상지원공소를 방문했다.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하는 이들 음성나환자 교우들과 그 가족 273명은 학생들의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 감사의 편지를 숲정이에 보내왔다.

노래와 춤, 떡과 과자, 장학금 전달, 공소 학생회에의 기금 전달도 있었지만 찾아 위로해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맛보았다고 한다.

교우들의 전당
(견습생 구함, 16세~18세 미만)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교우들의 건강상담
이 화 약 국
대표: 김 치 덕(바오로)
약사: 황 명 순(아네스)
김제 전화: 2006·2666·3666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창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카메라 대여 DP&E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주단·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 진 상 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582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순절 특별 강연회…3월중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중앙성당
   ① 7일…사순절의 의미(박도식 신부), ② 14일…크리스챤의 내적 쇄신과 일치(김영환 신부)
   ③ 21일…십자가의 현실적 의의(배문환 신부), ④ 28일…부활과 인간구원(박진량 신부)
2. 프란치스꼬 수도회 철수
   ① 12년동안 본 교구 노송동본당에서 사목을 담당해온 프란치스꼬 수도회가 금번 수도회 사정으로 본교구에서 철수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한국 관구에서 본 교구에 남긴 많은 업적과 역대 신부님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드립시다. ② 노송동 성당 임시 주임신부에 김정원신부 부임
3. 베델성서 개강…3월5일 부터
4. 제3지구 교리교사 연합회…오늘 12시 정각, 주현동성당…모든 교사의 참가 바람(회비 300원)
5. 근로자의 날 기념강연회…10일〈토〉 오후 8시, 가톨릭센타, 강사…이문영 박사
6. 각 본당 확인자도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착오없으시기 바람

□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임원 개편(79. 2. 20 교구장 인준)
회장…김봉희 신부, 부회장…조성호, 간사…김동준 신부, 감사…이수현 신부
교육분과 위원회…(위원장) 박종상 신부, (위원) 김준호 신부, 김순옥 수녀, 최남수, 박춘근
인권분과 위원회…(위원장) 문정현 신부, (위원) 이순성 신부, 임순조 수녀, 김순성, 백일성
사회 경제분과 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신부, (위원) 박창신 신부, 송윤희 수녀, 안득수, 김영춘
홍보분과 위원회…(위원장) 한상갑, (위원) 정태현 신부, 신길자 수녀, 김정생, 전자석

□ 3·1절 기념 월요기도회…3월 5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센타
□ 숲정이 편집실 전화놓기 성금, 감사합니다…용안 박풍식 5,000원
□ 4지구 성가대 마리아 뽈리…3월10일 오후2시—11일 오후5시, 가톨릭센타. 회비3.000원

(중앙)

전화 ③3651 /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프란치스꼬 3회 : 4일〈일〉 오후 1시 30분
2. 십자가의 길 : 매 금요일 미사 전후에
3. 금육일 : 사순절 매 금요일
4. 사제양성 저금통을 잘 키웁시다
5. 성가대 마리아뽈리 : 3. 10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타 3, 11 오후5시. 회비—3,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92,401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애령회와 자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본당 신부님 가정방문 : 금주간은 중노 1가와, 중노 2가동 3월 5일부터
3. 본당 성령세미나 개최
   3월 15일부터(목, 금, 토) 3일씩 2주간
4. 중·고등학생회 월례회 및 신입생 환영파티
   오늘 2시
5. 청년회의 : 오늘 10시~5시까지(구 성당)
6. 반상회 일정 안내 : 중노 1가 모란반, 난초반—3월 6일〈화〉, 중노 1가, 봉숭아반(기자촌)—3월 7일〈수〉 우아동 구역전체—3월 8일〈목〉

□ 지난주 봉헌금 : 86,12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 사순절동안 저녁미사후 십자가의 길 많은 참석 바람
1. 이번주 가정방문 : 금암동 1·2·3반(본당신부님), 팔복동·송천동(보좌신부님)
2. 한마음회 폐품수집 : 병, 신문, 잡지, 기타 협조바람
3.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4. 예비자교리 : 일요일—11시(A.m), 수요일—7시 30분(P.m)
5. 대학생회·중학생회 신입생 환영식 :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5,635원 교무금 : 123,98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후(유덕열형제댁)
3. 가정방문 : 고사동3반 5일〈월〉 반회장, 교회구헤레나
4. 중·고등학생 미사 : 매주일 오전 9시
   중·고등학생들 필히 9시미사에 나오시기 바람
5. 주일학교 : 매주일 오후 3시(국민학생, 유치원생)
6. 복자신용조합원은 통장을 지참하여 배당금을 받으시요

□ 지난주 봉헌금 : 222,49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11일) 공식미사 후
2. 반상회 및 가정방문
   제1반—6일, 제2반—7일(가정방문만), 제3반—8일, 제4반—9일
3. 성령세미나 : 7일 저녁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40,38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당 신축기금 신입 못하신분 빨리 신입해 주세요
3. 첫 영성체 교리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4. 동양아파트 반상회 : 3월 4일(빠짐없이 참석 바람)
5. 누깔다 유치원 입학식 : 3월 10일
6. 주일학교 교리 및 미사에 보내 주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23,1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사도회 : 저녁미사 후
2. 유아세례 : 2시미사 후
3. 중·고생 교리 : 9시미사 후(사제관 2층)
※ 전동 관할 신입 중·고생은 의무적으로 학생회에 가입하여야 함
4. 치명자산 미사 : 사순절 매 토요일 오후 4시
5. 사순절 매주일마다 평신도 특별강론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178,750원 교무금 : 110,7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 금일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 사도회임원 모두 참석하세요
2. 부녀회 : 공식미사 후
3. 중·고 신입생 환영미사 : 3월 17일〈토〉 오후 4시
4. 십자가의 길 : 사순절 동안 매주〈금〉 미사 후, 주일미사 후
5. 부활 판공성사 곧 시작 모두 준비하세요
6. 환자방문 : 매월 첫주 금요일
7. 원아모집 : 3월 7일까지

□ 2월까지 수입누계 : 1,066,260원,
지출 누계 : 1,053,618원, 잔액 : 12,642원
□ 지난주 봉헌금 : 53,910원

* 인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 2 7 2